

조양호 한진회장, '방위산업 발전' 감사패 받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회장에서 물러나며 한국방위산업의 발전을 이끈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11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지난 9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공군회관에서 개최된 '방진회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지난 14년간 맡아온 방진회 회장직을 내려놨다. 이어 재임기간 동안 한국방위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투명성을 높인 공로로 제16대 방진회 회장으로 선임된 최평규 S&T그룹 회장으로 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조 회장은 2004년 6월 제11대 방진회 회장으로 선임된 이래 14년간 활동해 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지난 9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오른쪽)이 신임 방진회 회장으로 선임된 최평규 S&T그룹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하이닉스 패럴림픽 성공개최 응원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반도체 부문 공식후원사인 SK하이닉스가 이 대회의 성공개최를 응원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9일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개막식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모아(주) 임직원 25명, SK하이닉스 임직원,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써니 자원봉사자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고 11일 밝혔다.

행복모아(주) 박철웅 사원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했는데, 동계패럴림픽대회 개막식에도 참석할 수 있어 더 뜻



9일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개막식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모아(주) 임직원, SK하이닉스 임직원,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써니(SUNNY) 자원봉사자 등 40여명이 모여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SK하이닉스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복모아(주)는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설립됐으며, 올해부터 모회사인 S

K하이닉스의 방진복 제조와 세탁의 일부를 시작했다. 다음 달에는 사업장 준공식도 가질 예정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un@

새로 나온 책 지하철에서 책 읽는 여자

현대문학/크리스틴 페레플리리 지음



'지하철에서 책 읽는 여자'는 '책'의 진정한 주인을 찾아 떠나는 모험 이야기로, 반복적인 일상에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소설이다. 프랑스 대표 출판사 갈리마르에서 편집자로 다양한 책을 기획하고 편집한 작가 크리스틴 페레플리리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책을 마주하고, 책의 참된 가치를 지켜봐온 경험과 애정에서 우러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한다. '책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궁극적인 물음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따분한 삶을 사는 소심한 여주인공 율리에트를 내세워 경쾌하고 산뜻하게 그 해답을 찾아간다. 주인공 율리에트는 '지하철-일-잠'으로 표현되는 전형적인 직장인의 삶을 사는 평범한 인물이다. 그런 그녀를 단조로운 일상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게 해주는 '구원의 매체'가 바로 책.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읽는 책으로 간접 경험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연애소설이나 요리책을 보며 대리만족을 할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 책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는 남자 '솔리망'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책 전달자'가 된 주인공은 독자의 손에 알맞은 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잘 관찰해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쌓여 있는 고민을 해결해주는 일을 맡기 시작한다. 이후 그녀는 책을 둘러싼 기묘한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이때껏 한번도 상상해본 적 없는 모험을 맛답게 하게 된다.

248쪽, 1만 2000원

/신정원 기자 sjw1991@

죄의 목소리

BNL/시오타 타케시 지음



일본 쇼와시대 최대의 미제 사건이라고 불리는 '구리코·모리나가 사건(일명 강만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신문 기자로 일했던 작가는 십수년간 집요하게 사건을 파헤쳐 실제보다 더 생생한 현장감으로 사건의 발생 일시, 장소, 협박장의 내용과 사건 보도 내용 등을 사실 그대로 재현해 추적 과정을 그렸다.

544쪽, 1만 4800원

/신정원 기자

신점[神占] 운세 3월 12일(음 1월 25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 쥐** 60년생 마음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72년생 음주와 흡연을 피하세요. 84년생 신경을 많이 쓰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96년생 피하는 일은 반드시 허망할 것입니다.
- 소** 61년생 꽃이 세리를 만나니 일신이 고달픕니다. 73년생 천천히 계획을 실천해 나가면 이루어집니다. 85년생 동업자나 주위의 의견을 듣고서 진행하세요. 97년생 성급하게 큰 것을 바라지 마세요.
- 호랑이** 50년생 성심 성의를 다하여 일하세요. 62년생 작은 자리라도 만족하면 길합니다. 74년생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세요. 86년생 옛날로 말하면 장원급제 할 것입니다.
- 토끼** 51년생 좋은 기술을 배울 여건이 됩니다. 63년생 학업에 열중하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75년생 사업 시기가 좋습니다. 87년생 건강을 조심하세요.
- 말** 52년생 자금 회전이 원활합니다. 64년생 무사 튼튼하게 노력하고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76년생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88년생 업무 처리 시 주변에 인원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 뱀** 53년생 배운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불리함이 적을 것입니다. 65년생 인내심과 끈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77년생 기다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89년생 좋은 기운이 감싸고 있습니다.

- 말** 54년생 평소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66년생 일손을 놓고 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78년생 막혔던 자금 풀리게 됩니다. 90년생 급한 혼인은 좋지 않습니다.
- 양** 55년생 사업은 차차 진전이 있습니다. 67년생 여기저기서 구원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79년생 구설수를 조심하세요. 91년생 시험 본 것이 있다면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 원숭이** 56년생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68년생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0년생 여행은 떠나지 마세요. 92년생 주변의 여건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 닭** 57년생 안 좋은 습관은 고치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9년생 큰 욕심을 내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81년생 하늘이 큰 복을 주게 됩니다. 93년생 얻는 것이 많으니 세상일이 태평스럽습니다.
- 개** 58년생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세요. 70년생 미래에 항상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82년생 서로 함께하면 쇠를 끊을 정도로 힘이 생깁니다. 94년생 시소한 것에 신경 쓴다면 득이 됩니다.
- 돼지** 59년생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입니다. 71년생 공로를 인정하여 포상을 구상하게 됩니다. 83년생 차조심해야 하겠습니다. 95년생 유명한 회사에 당당히 취직됩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친화운세상담 홍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홍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에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홍카페
<www.hongcafe.com>

	8		6		9			
1		2				7		3
7								4
		8	3		6	2		
	4			5			3	
	6						7	
		9				8		
8			1	5				6
	2			4			1	

	1	2						
3			1					
7			3			6	8	
	5	6	4		9			7
			4		5			3
	7					5	2	4
6							7	
			7	9			3	
		1	6		8			

스도쿠 정답

6	1	8	4	7	5	2	9	3
9	5	7	1	6	2	3	8	4
2	3	5	8	9	6	1	7	4
5	4	6	8	2	7	1	9	3
8	9	1	5	6	2	4	7	3
1	7	2	9	3	8	5	6	4
7	8	5	6	1	2	9	4	3
4	9	2	7	8	5	2	6	1
2	6	1	8	9	4	7	3	5
3	6	7	8	9	1	5	2	4
9	5	7	1	6	2	3	8	4
8	4	1	5	2	6	7	9	3
7	2	5	1	9	8	4	3	6
4	9	6	5	2	7	8	1	3
1	8	3	9	4	6	7	5	2
5	7	2	1	6	1	8	9	4
6	4	1	8	9	8	5	2	7

문제 제공 = 보너스

김상희의 四季

안과 같이 같은것, 慎獨

요즘 들어서는 더욱더욱 삼재판단의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 얼마 전에도 '미투'에 관한 단상을 풀어낸 적이 있지만 충격적인 우리 남성 위주 사회의 민낯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적지 않은 인지도를 지니고 있었던 문인에 대한 폭로 내용뿐만이 아니다. 연극계를 비롯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미투' 현상에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 문화예술계만의 얘기겠는가? 특히나 사회적 약자나 지위가 낮은 여성에 대한 권력이나 재력의 우위에 있는 남성들은 공공연히 자행해온 폭도 아니겠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어야할 종교계에서도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며, 이미 역사적으로도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는 한 있어온 뿌리 깊은 문제였지만 여권이 신장되다보니 이제야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일이다. 우리 어머니들이 종종 하던 얘기가 있다. 남자들은 대문 밖을 나가면 내 남자가 아니라는 자조적인 얘기를 결부 짓는 것은 지나친 얘길까? 필자가 여자라서인지 이 미투 폭로의 대상자들이 집에서는 모두 자상한 아버지나 남편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성인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는 필자로서는 신독(慎獨)을 실천하는 이들이야말로 성인(聖人)이란 생각을 한다. 신독이 무엇인가? 바로 안과 같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울곡 이이는 스스로 자경문(自警文)을 지어 홀로 있을 때조차 부끄럽지 않은 행동거지를 지켜나갔다고 전해진다. '신독'하면 울곡 이이를 먼저 떠올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자로서의 인격수양을 이루기 위한 자신과의 엄중한 약속인 것이며, 자신의 마음속에 찌르는 불순한 욕망이나 생각조차 물들지 않게 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순신장군 역시 백의종군 때 거쳐하려던 집의 주인이 과부라는 말을 듣고는 다른 집으로 옮겼다 한다. 자신의 의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미스러운 말이 돌 수도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이다. 구설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사주명리학적으로는 정관과 정인이 투출한 경우, 안과 같이 다르지 않은 정직하고 고지식한 성품이라고 본다. 물론 반안살과 같은 좋은 신살이 함께 있으면 고위직 출세도 기대할만 하다. 여기에 금국의 사주라면 흔히 말하는 청백리에 해당하는 관직에 오른다고 본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